

편집의 글(editorial review)

---

‘날 것’으로서 공공공간과 도시의 공공성  
반영토적 실천의 모색

김동환\*

공간의 결핍은 현대 한국 도시의 중요한 도시 문제이다(김동환, 2014: 179). 공유 공간의 유행은 또렷한 증거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압축 도시화의 어두운 단면이다. 격렬한 속도로 공간을 생산했으나, 그만큼의 공간이 사라졌다. 여름이면 인파가 몰렸던 한강 백사장은 아파트 단지과 간선도로에 점령되었고, 명동 어디엔가 남겨뒀던 공원부지는 유력인사에 팔렸다(한국방송공사, 2003). 국가와 시장이 공공의 이름으로 — 때론 공공의 이익이 되는 발전을 명목으로 — 진행한 공간 생산의 결과가 공공공간의 결핍이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결핍은 절대량의 부족이 아니다. 진입, 발화, 행위의 자유를 준거로 볼 때, 공간의 면적은 중요하지 않다. 국공유지 대부분은 이미 행정 관리의 대상이 되어 있고, 다중 이용시설로 불리는 민간소유의 유사 공공공간은 구매력을 요구한다. 일견 진입이 자유로워 보이는

---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간과 사회> 제51호 특집호 객원편집인(dw.gimm@gmail.com)

장소에도 기호와 상징의 정아(精雅)한 규율체계가 작동한다. 시야를 넓혀 보면 비단 공공공간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일상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도시공간에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구획의 논리가 부단히 관철된다. 빈곤의 문제만도 아니다.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수많은 선들이 공간에 놓여있다. 배제되지 않으려면 생생한 나의 삶을 버리고 주어진 코드를 따라야 한다.

지난 2014년 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문제 삼는 일군의 연구자가 모였다. 기존의 국내 연구가 주로 공공공간의 배제를 다뤘다면, 이들은 — 필자의 표현을 적용하면 — “반영토”(김동완, 2014)의 실천과 대안 탐색에 초점을 두었다. 공공공간의 공공성, 나아가 도시의 공공성에 대한 이번 특집은 당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꾸몄다.

## 1. 공공공간의 이상과 가상

서구 역사 최초의 공공공간(公共空間, public space)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다. 당시 아고라는 ‘유쾌한 번잡함’이 있는 ‘상호 전시’(mutual display)의 장소였다(Hartley, 1992: 29~30). 다양한 신분과 정체성의 개인들이 만나서 교류했다. 서구 역사에서 식별된 공공공간은 상호전시의 특성을 공유한다. 정치행위나 상업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인간 행위가 공존했다(Sennett, 1992: 21~22).

근대 이후 공공성과 공공공간은 국가가 떠맡았다(사이토 준이치, 2009: 30). 공적인 공간의 일부는 민간(사인과 법인) 소유로 이전되었고, 나머지는 국가의 합리성 신념체계 덕분에 공공성을 담지한 곳으로 가정되었다. 한나 아렌트와 앙리 르페브르의 세례를 받은 비판적 연구자는 공공공간의 가치중립성을 의심했다(Howell, 1993; Mitchell, 1995; 사이토 준이치, 2009; 김동완, 2014). 그것은 하나의 신화이자 이데올로기였다. 신체를 배제하고 행위를 규율하는 권력의 ‘매개’(mediation)가 공공공간을 동질화시킨다. 안

과 바깥, 여기와 저기,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경계가 작동하는 하나의 영토이다(김동완, 2009: 254). 그러나 공공공간에 씌워진 중립성의 가상(假象)이 정치과정을 은폐한다. 섬세한 매개의 기술이 작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공간을 빈 곳으로 착각한다. 경계의 논리는 그 안을 바깥과 구분하며, 안을 한 가지 색으로 채운다. 공공공간에서 일어나는 동질화 과정에서 모든 타자(他者)는 제거된다. ‘나’라는 주체 역시, 공간이 기획한 정체성으로 소실된다. 때론 폭력적으로 때론 섬세하게 물리력과 상징을 활용한 기억과 체험은 공공공간의 신체를 검열하고 훈육한다. 어디서도 타자를 만나지 못하고, 타자와 구분되는 나를 확인하지 못한다. “차이는 차이를 만드는 기호로 대체되며, 그 결과 (실제) 차이는 유도된, 그리고 기호로 환원된 차이에 의해” 이미 대체되어 있다(Lefebvre, 1991: 389).

## 2. ‘날 것’으로서 공공공간과 反영토의 공간 실천

발언하고 시위할 공간이 없어 배제된 삶은 ‘버려진 삶’이다(Verlassenheit; 사이토 준이치, 2009: 15). 이들은 상호 전시할 공간에 서지 못하므로 공적(정치적) 행위를 허락받지 못한다. 타자와 ‘나’를 잃어버린 빛바랜 삶이자 잉여의 삶이다(아렌트, 2006: 279). 권력의 공간 실천은 구획하고 분등(分等)한다(르페브르, 2011: 532~533). 분류와 등급은 생생한 삶을 제거하고 ‘공약 가능’한 동질의 공간으로 대체한다. 물리적 설계와 이용자의 공간 경험을 기획하고 재단한다. ‘고상한’ 공간과 ‘그저 그런’ 공간의 분류를 물리적, 상징적 경계로 관철한다.

그렇다면 한 논자의 질문처럼 “공공공간은 끝난 것인가?”(Mitchell, 1995). 공공공간은 부단한 정치과정의 산물이다. 현실의 공공공간이 권력의 매개로 가득하다면 그것 역시 정치적 실천의 결과다. 공공공간의 이상이 여전히 유용하다면 질문을 바꿔 보자. 공공공간에서 발화와 행위의 자유를 얻을 방법은 무엇인가? 매개된 공간을 ‘날 것’으로 바꿔놓을 방

법은 무엇인가? 필자는 줄고에서 ‘날 것’으로서 공공공간을 하나의 규범으로, 반영토(counter territory)의 기획을 필요한 공간 실천으로 제안한 바 있다(김동완, 2014). 날 것으로서 공공공간은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가능한 가장 폭넓은 공공성을” 가지는 현상의 공간이다(아렌트, 1996: 102~103). 권력의 경계 짓는 기술은 ‘날 것’과 양립할 수 없다.

반영토의 실천은 경계를 폭로하고 해체한다. 반영토의 실천은 탈(脫)영토나 탈주가 아니다. 물리적 배제에 대한 직접행동, 기호와 상징에 대한 문화적 실천, 정부의 실험적 기획, 연구자의 분석적 글쓰기 등 경계를 고발하고, 해석하고, 비틀고, 재구성하는 일련의 실천이다. 다만 반영토의 실천은 점령이나 소유를 최종목표로 두지 않는다.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다’는 의미이다. 반영토 기획의 유일한 목적은 경계 해체(de-bodering)이다. ‘누가’(who)는 부차적인 문제다. 경계 짓는 영토의 기술은 필연적으로 배제한다. 초점은 경계를 만드는 권력의 기술이다.

### 3. 타자를 복원하기 위한 대안의 탐색

이번 특집에 실린 세 편의 논문은 공공공간의 공공성, 나아가 도시의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각각에 담긴 구체적인 모습에 차이는 있지만 경계를 드러내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 전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현철(2015)의 『도시를 쿼어화하라』에서 다룬 신촌 쿼어퍼레이드 사례는 강렬하다. 폭력과 대항폭력이 난무하는 격렬함은 없지만 한국 도시공간의 이성애적 편향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퍼레이드라는 형식은 신촌의 이성애적 문법을 깨뜨리고 파열시켰다. 참가자들이 수행한 ‘패러디’, ‘퇴기’, ‘작품적 걷기’는 기왕에 공공공간에 숨어 있던 이성애적 규율을 폭로하고 조롱한다. 짧은 시간 펼쳐지는 감각적 퍼레이드는 일시적인 경

계 해체를 수행함으로써 권력의 매개와 영토 기술을 —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 정지시켰다. 이런 식의 공간 실천은 ‘날 것’인 공공공간을 복원함으로써 타자를 드러낸다. 상호전시의 공간은 나와 다른 생생한 삶을 등장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연대”(같은 글: 22)를 생산했다. 다른 측면에서 신촌 쿼어퍼레이드는 일부 개신교도의 반대시위를 불러일으켰다. 즉, 쿼어퍼레이드의 상호전시는 두 과정을 동시에 일으켰다. 비이성 애자들에게 공공공간에서 보이지 않았던 동류(同類)를 나와 함께 확인하는 장이 되었고, 이성애자들에게는 공공공간의 이질성을 처음 체험하는 장이 되었다. 요컨대 쿼어 퍼레이드의 반영토적 실천, 그리고 참가자들의 다양한 수행은 공공공간의 이성애적 영토성을 폭로했고, 중성(中性) 혹은 무성(無性)으로 은폐한 상징의 경계에 파열을 냈다.

한윤애(2015)의 논문은 지리적 스케일을 도시 전체로 올려 놓았다. 핀란드 헬싱키의 레스토랑 데이를 사례로 한 분석에서 저자는 이주민들이 노점 레스토랑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 측면에 주목한다. 나아가 반복적으로 벌인 ‘축제적 전유’가 어떻게 헬싱키 공공공간을 재구성했는지를 보여준다. ‘무균질의 공원’이 이질성의 가득 찬 공간으로 변모하는 동안 시당국의 입장에도 큰 전환이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 경쟁력과 마케팅 같은 정부 당국의 신자유주의적 발상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레스토랑 데이의 축제적 전유가 공공공간의 경계 규칙을 후퇴시키거나 모호하게 만든 중요한 성과이다. 헬싱키 주류집단에게는 이주자와의 공존을 건설적으로 도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주자 집단에게는 헬싱키 공중(the public)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게 만든 사건이다.

박인권(2015)의 논문은 도시 정부의 시각에서 ‘공공공간’ 나아가 도시 전체의 공공성을 ‘포용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끌어들인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공공공간을 넘어서 도시 스케일의 공공성과 공적인 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진지한 성찰을 제안한다. 특히 저자는 도시를 추상적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거주(residence) 차원의 구체적 실천으로 끌어올린다. 앞선 두 논문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나 이주자와 같은 사회적 한

계 그룹을 끌어안고 공존하기 위한 공간 실천을 검토하는 한편, 그들이 자원배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의 제도화를 도모한다.

이번 특집의 키워드는 공간의 전유이다. 퀴어퍼레이드와 레스토랑 데이는 기존의 공공공간을 축제적으로 전유해 공공공간의 영토성을 해체한다. 혹자는 불과 하루 이들의 축제로 바뀌는 게 무어나 비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축제적 전유는 종말론의 서사에 육체를 부여한다. 정해진 공간실천이 루틴으로 굳어지면 그것은 일상이다. 일상은 항구 불변이다. 권력의 매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상은 대안적 실천을 무력하게 만든다. 반면 축제적 전유는 ‘또 다른 것이 가능하다’는 공공공간의 잠재태를 생산한다. 종말론이 이론의 한계를 벗는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 전유는 반영토적 실천의 효과적인 형식이다.

또한 박인권의 제안처럼 지방정부 역시 대안적 기획의 중요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반영토적 실천의 핵심은 권력자 처단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 특정 분파가 운영하는 지방정부는 국가 일반이 아니다(cf. 제습, 2000). 중요한 것은 공간을 분할하고 배제하는 통치 논리를 극복하는 일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집권 분파의 전략에 따라 경계를 해체하는 정책적 기획도 가능하다(김동완, 2014). 다만 정부의 공간 통치에 큰 전환을 꾀한다면 기존의 정당화 논리와 진리 게임을 벌여야 한다. ‘포용도시’ 같은 정책개념은 이 게임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완. 2009. 『1960년대 광주 지방의 지역개발담론과 아래로부터 지역주의』. 《정신문화연구》, 32(4), 247~279쪽.
- \_\_\_\_\_. 2014. 『‘날 것’으로서 공공공간과 타자의 복원: 로열 페스티벌 홀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49, 178~209쪽.
- 김현철. 2015. 『도시를 퀴어화하라: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공간의 공공성, 2014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51.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51.
-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 2009.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민주적 공공성』. 서울: 이음.
- 아렌트, 한나(Arendt, Hannah). 1996.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 \_\_\_\_\_. 2006.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2』. 광주: 한길사.
- 제습, 밥(Jessop, Bob). 2000. 유범상·김문귀 옮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국방송공사. 2003. 『불도저 시장 ‘신기루’를 세우다: 김현옥』. <인물현대사>. 2003년 8월 29일 방영.
- 한윤애. 2015. 『‘축제적 전유’를 통한 공공공간의 재구성: 핀란드 ‘레스토랑 데이’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51
- Hartley, John. 1992. *The politics of pictures: The creation of the public in the age of popular media*.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2.
- Howell, Philip. 1993. “Public space and the public sphere: political theory and the historical geography of modern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11, pp. 303~303.
- Lefebvre, Henri.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Smith. Oxford, UK.: Blackwell, 1991.
- Mitchell, Don. 1995. “The end of public space? People’s park, definitions of the public, and democrac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5(1), pp. 108~133.
- Sennett, Richard. 1992.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London: W.W. Norton.